

## , 절기문화 행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하다.)

(대전신학대학교 실천신학교수)

### 1. 호감도가 교회성장을 좌우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체 내지는 감소라는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압박감은 말로 할 수 없다. 건강한 목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18%라는 낮은 신로도와 20%를 넘지 못하는 호감도가 말해주듯이 전도의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영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뢰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열쇠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적극적인 소통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선교부가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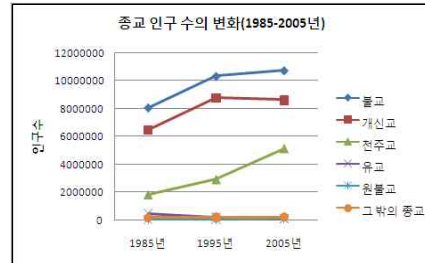
8개 지역에서 신년목회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서울에서 제주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대형교회에서 개척교회까지 다양한 40개 이상의 교회들이 발표한 목회사례들을 발견된 공통적인 사실이 있었다. 교육, 복지, 문화 등으로 지역사회에 필요를 찾아 다양하게 섬기는 방법으로 소통을 갖는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수는 18.3%인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8%(신뢰하지 않는다는 3배가 되는 48.3%)와 호감도는 20.5%란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는 14%이고(신뢰하지 않는다는 50.8%), 교회활동에 대한 관심은 24.5%(관심이 없다는 50.4%)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회의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은 38%이고, 관심이 없는 아주 낮은 14%였다.

한국사회는 지금 한국교회에게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통이 없이는 신뢰의 회복이 어렵다.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뢰도 만큼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전도 프로그램에 의한 교회성장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더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전도 프로그램에 극히 적은 가톨릭 등 타종교가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급성장했는데 기독교인 오히려 이 기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호감도에 영향을 끼치고 호감도가 그 종교의 성장의 수치를 좌우한다. **교회안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무척이나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성장할 만큼 성장한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뢰도를 얻게 될 때에 호감도도 높아지고 그 신뢰도와 호감도가 쌓이면서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강력한 영성훈련이 요청되며, 이와같이 외적으로는 소통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 전도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다양한 절기들을 교회 안에서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2. 빠진 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연고와 특성을 고려한 축제 문화 프로그램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가히 압도적이다. 오랜 시간동안 과도한 노동에 짓눌려 문화에 굶주려왔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지역별로 별의별 축제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시작된 21세기의 문화시대에 대한 예측의 반영된 결과이며, 문화마케팅과 문화 정치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증되고 있다. 문화가 소위 일부계층을 위한 고급스러운 전유물에서 이제는 값싼 자본주의의 상업적 중재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 우리들은 이미 서있다.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보름 만에 단일축제로 100만명 돌파를 돌파했는데 이런 추세는 2006년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축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시의 구나 단위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문화회관이 경쟁적으로 건축되고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수익에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축제들이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 2009년 서울시와 각 구에서 실시된 축제만 119개이고, 전국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898개로 나타났다. 이젠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시대, 문화로 정치하는 시대, 문화로 마케팅 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문화목회와 문화선교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75	68	33	27	10	22	27	115	105	50	81	50	47	48	112	28	898

(본 자료는 2009년 3월 10일 기준,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한 것임)

사람의 속성은 일하는 것보다 쉬고 놀고 싶어하는 '유희적 인간(호모 루덴스 Homo Ludens)'으로 여가와 놀이를 통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식경제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은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정해진 노동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하는 시간이 점차 더 길어지고 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일(work)과 레저(leisure)가 합성된 신조어인 웨저(weisure)가 등장하면서 노동시간의 연장, 업무기술의 혁신 등으로 일과 놀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웨저 트렌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로 만들어 버리는 '레이버레인먼트(labortainment)' 현상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동기로 행한 놀이 행위를 사업자가 생산적인 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TV 등에서도 강호동의 1박 2일, 유재석의 놀러와, G 7의 청춘불패,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 등과 같은 놀이성 유희 프로그램이 시청률의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노동에서 벗어나 무작정 놀고 싶어 하는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일과 놀이를 함께 하는 트렌드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업무와 놀이를 분리하지 않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Creative Class)가 시작된 것이다.

### 3. 밖으로 나온 교회가 부흥한다?

릭 루소·에릭 스완슨은 교회는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대부분의 대형교회의 모델인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지역을 잘 섬기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취약한 섬기는 교회, 복음 선포하고 지역을 사랑하는데 효과적인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만 전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밖으로 나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들은 건강하고 변화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교차점이 만나는 지점에 서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도시의 필요와 꿈, 둘째는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 그리고 셋째는 지역교회의 소명과 역량인데 이 교차점을 모두 포괄하는 유일한 지점이 '섬김'으로 세 가지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점(sweet spot)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필요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명령을 듣고 지역교회의 소명과 역량을 섬김으로 찾아들어가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러한 변화들은 지역에서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단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 이를 채워주는 강력한 섬김의 봉사 활동이 근본적으로 요청된다. 선물공세처럼 일시적인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하고 사명과 비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의 존재 목적임을 천명하는 정책적인 대안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21세기 문화 중심의 패러다임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어 문화 비즈니스시대에 맞는 경제적인 마인드, 문화적으로 소통할 줄 아는 능력, 문화적인 유연성이 중시 되는 것처럼 '문화'는 이제 기업은 물론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문화가 결합된 교회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문화적 영성'으로 무장하고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선교 콘텐츠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넓은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카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향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 공간제공,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대학과 같은 프로그램, 어린이 도서관과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등을 지역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획, 개발, 진행하는 봉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 수혜적으로 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며 확고한 선교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 4.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의 방법과 전략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끼리만의 축제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명곡 칸타타나 찬양 중심의 행사를 지역주민 초청 열린 음악회나 기독교 연예인의 간증집회를 문화축제라는 간판을 거는 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린음악회를 열고 기독교 음악을

연주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기만적인가? 태신자를 초청하여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태신자는 별로 없고, 1부는 예배와 2부는 기독교 연예인을 불러다가 간증이나 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 중을 올리는 것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태신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고사하고 교인들에게도 이제는 식상한 결과들을 초래한다.

이러한 안일한 발상과 기획과 접근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식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벽을 더 높게 쌓게 만들고 세상과는 더욱더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 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준비한 관계 중심의 총동원전도가 마지막에 어처구니없는 접근으로 허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첫째, 교회 밖으로 나온 섬김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상의 전환이 요청되는바 전도에 대한 성과 지향적인 조금함을 버리고 지역사회에 소통을 통한 신뢰를 높이기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교회의 목적선언문이나 핵심가치에 이를 반영하여 교회의 선교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당회와 재직과 전 교인의 공감을 폭넓게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아울러 이 사역을 체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유역한 관련인사들을 고문이나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알려 끊임없는 의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사회를 수시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찾는다. 아울러 이 조직에 교인들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30%이상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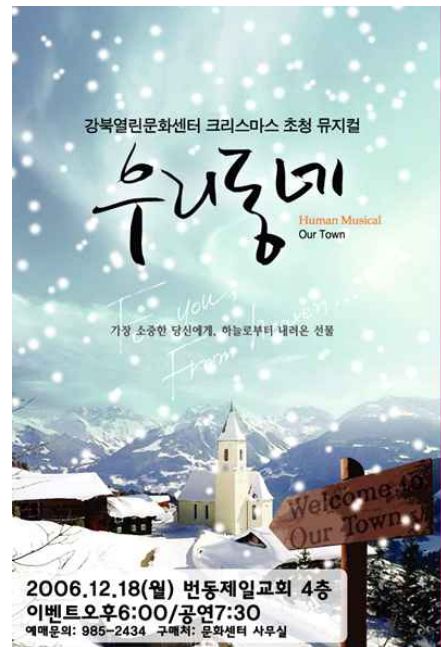
셋째, 평소에 지역사회와의 행사나 이슈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공공단체, 시민단체, 기타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교인들을 참여시키거나 함께 참여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 아울러 절기문화행사를 지역사회 단체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정신만을 충분히 살리되 너무 기독교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역 광장, 공원, 시장, 버스정류장, 정자, 주민센터, 경로당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교회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의 장(場)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지역사회에 눈높이 맞추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지역 섬김을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

절기의 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 느리더라도 함께하고, 부족하다라도 팀워크를 발휘하여 참여시키고, 성과에 조급하지 말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적은 것이라도 독식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신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선한 결과들을 기다리고 과정 중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여 호감도를 높이면 신뢰가 쌓여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교인들을 참여시켜 관계중심의 전도를 전개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부스 설치를 통해 교회 기관이나 지역의 부녀회 등이 준비하는 음식과 판매 부스를 운영하도록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 이익금은 전액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맞게 유아(놀이), 어린이(체험),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년(문화), 장년(장기자랑), 노인 등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

셋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선물을 전달한다.

넷째, 노천 임시카페들을 차와 음료들을 나누면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한다.

다섯째, 행사의 진행 내용들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여론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한다. 아울러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공감사진베스트를 선정하여 출연자들을 시상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서 알리고 시상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지역사회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교회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필요를 찾아내어 단계적인 전략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

통해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사 안에 반영하고 수용하되, 일방적으로 교회가 준비하고 수혜자처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 행사가 중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5.        **춤추고 잔치하는 절기를 위하여**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교회 밖 세상 속으로 나가 그들의 필요를 찾아 섬김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의 교회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이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나 그리스도적 삶의 총체이다. 신뢰를 통한 소통만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외적 기반이다. 이런 배경에서 절기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청되고 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거리에서, 성탄절을 골목에서, 부활절을 마을 정자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을 펼쳐보는 보자.

김명찬교수는 대전신학대학교 예배와 설교학 교수이자 총회목회정보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총회교육자원부 집필자 및 강사, 영상목회, 문화목회, 교회성장 등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모바일 목회와 다음세대 교육전략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섬기는 문화목회를 10년 동안 사역 했으며,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교회교육에 20년을 사역했다. 이제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수와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연구소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헌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함께하는 교회절기의 사회화

성석환 교수(안양대/기독교문화)

절기를 지키는 일은 그 종교의 핵심적 신앙고백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신을 경배하거나 창시자를 기념하고, 또 신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은총을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 의식이나 절기행위에 드러난다. 기독교 절기들도 오랜 시간 제도화를 거쳐 형성되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갖기는 했지만, 개신교회의 절기도 유대교나 가톨릭처럼 제도화와 형식화를 거쳤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도화되고 형식화된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반복적인 관습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후반부터 거세기 불기 시작한 신흥종교들의 발흥은 이러한 경직된 근대적 제도화를 극복하고, 보다 '유동적(liquid)'<sup>1)</sup> 영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제도권 종교들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직된 종교의식들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도 그런 도전에 응답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문화적 수용력의 깊이와 표현력의 다양성이 확대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소통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종교행위나 실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sup>2)</sup>가 많은데, 그것은 교회가 주도하는 소통형식을 여전히 고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인들이 그 본래의 취지에 공감하거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교회 외부의 구성원들도 이해 가능하도록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의 절기기념 행위이다. 사실 기독교의 절기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의 사회화, 공공화의 실천은 외부와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는 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 이스라엘의 절기형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구약 학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벨론 포로시기를 거쳐 형성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기는 가나안 정착 시기를 전후하여 각 부족의 지역축제 형식으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독특한 유일신 신앙은 이러한 지역축

1) 개념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Liquid Modernity*(polity, 2000)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는 '유연화', 혹은 '액체화'가 근대의 종교적 이미지들을 세속화하고 과거의 전통을 무력화하며 과거의 신념과 충성심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p. 3.

2) 2008년 12월 실시한 기윤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그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총 조사자 중 48.3%가 기독교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최근(2009.8)에 실시한 시사IN의 신뢰도 조사에서도 천주교 66.6%, 불교 59.8%, 개신교 26.9%로 나와 세력에 비해 신뢰도에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 잡지는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들과 연결함으로써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롤랑 드보(Rolland de Vaux)는 일반적인 축제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모에드’인데 반해, ‘하그’는 3대 축제인 무교절(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초막절만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이 세 절기의 축제들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가나안 정복 이후 각 지역이나 부족의 축제로 치러지다가 왕정 성립 이후에 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민족의 공동 축제가 되었다고 한다.<sup>3)</sup>

중앙집권화된 축제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제도화되고 그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 성경에서 그 축제에 대한 언급을 찾기 힘든 이유이다. 그러다가 침략과 패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조상의 신앙으로부터 전해오던 절기와 그에 부여된 구속사적 의미들을 회복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 후 회복과 개혁을 주도한다. 이들은 귀환 후 실의와 무질서에 빠진 백성들을 율법을 중심으로 단결시킨 후 큰 축제를 베푼다(느 8장-10장). 성전을 재건한 후 백성들과 잔치를 열고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서약식 장면들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런데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에서 율법 공동체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기도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종교를 역사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은 원래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언약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율법은 실질적으로 신앙의 근거로서 역사적 언약의 지위를 빼앗았다.”<sup>4)</sup>고 주장한다. 율법의 준수가 곧 언약의 증표임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신앙은 역사적 맥락의 역동성과 신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창조주를 농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한 구속주를 기념하는 축제는 이제 중앙집권적 행사가 되었고, 생생한 기억의 회상보다는 율법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 큰 일이 되었다. 본래 해방을 기뻐하고 추수를 감사하던 지역의 잔치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만 시행되게 되었고, 왕권 혹은 단일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경직되고 제도화된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안식일 논쟁(막 2)이나 율법 논쟁들을 통해 율법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셨다. 드보는 예수 스스로가 율법을 성취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율법주의와 결별을 선언했다고 본다. 이제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절기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실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래의 의미대로 ‘만남으로서의 축제’는 회복되었는가?

### 기독교의 절기형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우리는 대체로 안식일과 주일, 유월절과 부활절, 오순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을 연관시켜 생각한다. 실제로 그 시기나 기원은 관련이 있으나, 신학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sup>5)</sup> 매 주일은 실제로 주님이 부활

3) Rolland de Vaux, 역, 『구약시대의 종교풍습』(서울: 나단, 1993), 213-21쪽. 예컨대 요시아 왕은 개혁의 상징으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다(왕하 23:21ff).

4) John Bright, 박문재 역, 『이스라엘 역사』(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610쪽.

5) 초대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Psacha)’라고 불렀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고전 5:7)”으로 희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어 ‘이스터(Easter)’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로서 ‘새벽’이라는 의미의 Eastre와 ‘봄의 여신’이라는 의미의 Ostara가 합성된 단어로 새벽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여 이교도 축제에서 기인했다고도 한다.



기념하는 것이고, 지금 형식의 부활절(춘분 이후 만월 다음 주일)은 7세기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주일과 부활절은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며 새 언약의 수립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오순절 축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새 교회는 온 세상에 나가 섬겨야 할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사건이 칠칠절(초막절)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 또한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율법적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은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하나님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갔다.

역사신학자 윌리스턴 워커(Williston Walker)는 초대교회의 절기나 공예배가 축일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부활절이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고 이 축제는 오순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한다.<sup>6)</sup> 그런데 로마제국의 지배 하에서 기독교도 필연적으로 정치적 제도화를 겪게 된다. 필자가 주목하려는 시기는 이렇게 기념적이고 축제적인 기독교의 절기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결정적인 역사적 계기이다.

물론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에서 직제의 초기 모습이 나타나고 2-3세기 이단들과의 변증과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화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있었지만, 중앙집권화와 종교의 제도화는 역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 결정적이었다.<sup>7)</sup> 기독교 공인은 성직자들의 기능과 신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부와 권력도 누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적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와 직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특히 예배력과 절기들을 다듬기 시작한 4-5세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종려주일, 사순절, 세족일, 성 금요일 등이 제정되어 특별한 기념일로 지켜졌다. 또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성탄절, 주현절 등이 당시 태양신 숭배 관습을 전용하여 새롭게 지켜졌다. 공식적인 성무들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인과 순교자들에 대한 축일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 기독교 건축과 예술도 크게 꽃피웠다.

기독교 공인은 기독교의 제도화로 이어졌고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제도화, 형식화, 신학화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각 종 절기의 수립과 기념일을 제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4세기까지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형식화가 진행되었고, 초대교회의 생생한 감격과 축제는 반복적인 절기를 지킴으로서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절기를 기념하는 축제의 중앙집권화는 예루살렘만을 축제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독교와 이익을 유지하려던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처럼 로마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부를 보장해주었다. 이스라엘의 축제들이 중앙집권화와 율법주의자들의 형식화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정치권력과 가까워진 기독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과 19세기 부흥운동, 20세기 영성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다.

## 21세기의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공공성

6) Williston Walker, 역, 『기독교회사 상(上)』(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20쪽.

7) 콘스탄티누스 황제(the Emperor Constantine)가 313년 밀라노 칙령(the Edict of Milan)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한 후, 325년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를 채택하여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했다. 이 고백은 신정정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종교로 선언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120만이 넘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다원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화의 물결과 고밀도의 정보사회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본질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중앙집권적 발상이나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제도적 종교도 이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예측했던 ‘세속사회(the secular society)’의 비종교화 현상은 지나친 오해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사회의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제도권 종교의 쇠신과 새로운 종교성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와 다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공간에서 외부 주체들과 공존하는 언어와 행동양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리방 뵈브(Lieven Boeve)는 오늘을 세속화 시대가 아니라 탈전통, 탈중심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언어와 행동양식을 가진 기독교의 새로운 가시성(visibility)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narrative)가 외부의 다양한 주체, 전통과 만나는 상황(context)에서 재구성되도록 타자로 인해 야기되는 우리 이야기의 ‘잠시 멈춤(interruption)’ 상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어 내부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종교개혁적 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학과 영성은 그런 발전상들이 추천하는 것을 마지못해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sup>9)</sup>고 단언한다.

결국 21세기의 기독교와 교회는 내부 공동체성만을 강조하는 어법과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력들과 공존하며 우리가 믿는 바와 이야기를 타자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증언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이러한 필요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 그것이다. 교회가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일상생활이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다문화주의가 국가정책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성 종교는 새로운 ‘가시성(visibility)’ 혹은 피터 버거(Peter Burger)의 용어인 ‘타당성(plausibility)’<sup>10)</sup>을 문화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즉 기독교와 교회는 그 본래적 공공성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1)</sup> 이런 점에서 교회의 절기를 사회화하고 공공화하는 작업은 매우 적합한 전략이다.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서의 절기

기독교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영역은 절기들이다.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절기형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래 지역적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중앙집권화 되었고, 율법주의가 단일한 질서와 내부의 단

8) Lieven Boeve, Religion after Detraditionalization, in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London: continuum, 2008),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eds., pp. 203-04.

9) Alister Mcgrath, 역,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서울: 좋은 씨앗, 1991), 223쪽.

10) 그는 세속화 시대의 종교가 시장상황에 놓이게 되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11) 이 문제를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다룬 필자의 다음 줄고를 참고하라. 성석환, “한국 공공신학의 실천과제로서의 문화변혁,”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편, 『기독교사회윤리』, 제 17집(서울: 선학사, 2009).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축제적 만남보다는 제도적 장치로 변모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예수께서 주장하신 절기 본래의 신학적 의미와 초대교회가 부여받은 하나님나라의 선교적 실천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이다.

절기의 사회화 혹은 공공화는 구체적으로 교회 구성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사회적 지평으로 확장하여 실천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이웃돕기 바자회,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절기행사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지역을 대상 혹은 객체로 인식함으로써 구제나 시혜(施惠)의 차원으로만 접근했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존재론적 인식은 약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절기행사를 지역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외국의 사례들이 많지만,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의 절기기념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담아내는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스티브 테일러(Steve Taylor)는 축제적 영성을 통해 교회의 행사를 지역의 공동체와 만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sup>12)</sup> 그는 이것을 ‘찾아감의 영성(spirituality2go)’이라고 부른다. 특히 도시지역의 교회들은 이러한 시도가 절실하다. 한국에서도 도시공간은 경쟁과 충돌의 장이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이 어렵고,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도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디자인, 공공 미술, 창조적 도시건설, 마을공동체 등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 지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동체 개념은 항상 문화 콘텐츠와 문화 서비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와의 문화적 연대 등을 포함한다.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제적 이익도 도모한다.<sup>13)</sup>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원들을 네트워크 하고 일종의 클러스터(cluster)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축제나 행사와 교회의 절기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city)에서 교회공간들은 다양한 만남을 제공하고 문화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카페나 문화관 등을 신설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마땅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경우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행사나 축제와의 연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대학로에 위치한 동승교회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내에 위치한 교회가 아닐 경우,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생활관련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부활절기념으로 교회 벽에 ‘그림벽화 그리기’나 추수감사절기념 ‘지역주민 달리기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절기축제에 지역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의 축제가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절기의 신학적 의미를 공공 영역의 사회문화적 과제들과 연관시키는 작업이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의 연장이다. 동승교회의 경우 2008년 성탄절과 2009년 부활절 행사를 각각 우리나라에서 대표

12) 축제적 영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절기축제는 아니지만 소위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들이 지향해야 할 영성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적 영성을 권하고 있다. 또 그는 교회의 예배와 절기행사가 문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Steve Taylor, 성석환 역, 『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시 교회로』(서울: 예영, 2008), 166-68쪽.

13) 최근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에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창조적 도시와 문화적 지역축제를 정책적으로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음에서 구할 수 있다. 이흥재, 『문화정책』(서울: 논형, 2006), 263-76쪽.

NGO들과 연계하여 그 신학적 의미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했다. 성탄절은 깨끗한 물을 필요한 이들을 위한 모금행사로 "the Waterful Christmas"라는 축제를 진행했고, 부활절에는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천주교나 불교가 개신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야기를 사회화하고 공공화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도시공동체 사역에 관심을 가진 로날드 피터(Ronald E. Peters)는 도시지역이 '소외, 공포, 폭력'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행사가 이러한 정의의 문제들을 화해와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할 좋은 장이라고 믿는다.

예컨대 부활절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구하기 모임을 행정당국과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사회적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다. 그저 자비를 베푸는 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과 개인의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혹 지역의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면 부활절에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지역주민의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잔치를 벌이면 어떨겠는가?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감사의 열매를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감사한 이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에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공급되도록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너무 상업화된 성탄절을 소비적으로 기념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를 돌아보는 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문화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사회화, 공공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개발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상징적 과제를 선정하고 언론과 공중에 알려야 한다. 천주교와 불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회화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개신교에서도 3대 절기를 민족적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일본의 동경 아사쿠사에서 마쯔리(축제)를 본 적이 있다. 여대생이나 아이들까지 온 세대가 참여해서 흥겹게 외치고 자신들의 구호를 외치는 광경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축제가 많이 있었지만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전통적인 축제에 온 세대가 어울리는 광경은 이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절기축제가 전통과 만나 온 세대와 온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절기의 사회화는 간단히 말해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와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 안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의식(ritual)과 절기기념 행위를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본래 공적이고 사회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공동체 운동이 점차 목소리를 얻어가고 있는 시점에,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몇몇 움직임들이 있어 다행이다. 절기의 사회화 전략은 이러한 노력에 매우 큰 힘을 보탬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절기의 사회화 전략을 실천한다면 분명 선교적으로도 큰 수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행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

##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 , 축제 및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이선철 (<주>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 ■ 학습목표

- 다양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성화 방안
- 축제 등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안
-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와 문화체험역량을 강화
- 이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패요인을 학습

### ■ 문제제기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 자원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하는 자원은 무엇인가?
-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역량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 네트워킹 왜 중요한가?
- 공공사업의 중요 요소는 무엇인가? : 재원 / 진정성 / 효율성 / 홍보

## 본문

### 1. 이해와 전략적 기획

#### 1.1 문화의 가치(value of arts & culture)

- 문화의 정의와 가치
- 문화예술과 삶

#### 1.2 문화정책과 경영(cultural policy & management)

- 문화 정책과 예술경영의 필요성
- 지역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

#### 1.3 전략적 기획과 실행(strategic planning & implementation)

- 기획의 정의와 속성
- 전략 마인드의 대두

### 2. 지역자원의 이해

#### 2.1 지역 자원의 종류(resource management)

- 인적자원 : 가용자원/잠재자원/유입자원
- 재정자원 : 공공지원 vs 투자
- 인문자원 : 문화/역사/공간
- 생태자원 : 친환경적관광과 개발

#### 2.2 지역개발 전략의 실행 방안의 단계

- 인식기 : 가치의 인식
- 확산기 : 모델의 개발
- 안정기 : 시스템 확충

#### 2.3 지역의 자원개발(resource development)

- 잠재적 자원의 개발 : 핵심 가치의 발견 /비전의 구체화

- 브랜드 자산 가치의 증대
- 에코뮤지올로지 : 폐교/테마마을

#### 2.4 공공지원 정책의 접근(strategic planning & implementation)

- 마케팅적 접근법의 활용 / 정치적 논리의 개발
- 방법 : what의 문제보다는 how의 문제 의사소통과 네트워킹
- 홍보의 의미: tax-payer에 대한 의무/인식과 공감대 형성/가치의 극대화

#### 2.5 문화공간의 활용(place marketing)

- 하드웨어의 복합적 의미 : 콘텐츠와 오퍼레이션 및 커뮤니티까지
- 기존 문화공간의 활성화
- 공간기획의 중요성 : 전문가의 활용

#### 2.6 축제의 활용(value of festival)

- 소비가 아니라 지역 역량의 재생산
-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측면의 통합적 의미
- 해외의 사례

### 3. 이해

#### 3.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이해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유형
- 정책적 당위성

#### 3.2 문화예술교육의 활용(arts&culture education)

- 잠재적 수요 개발과 관객개발
- 향유자 입장에서의 복지적 측면
- 매개자 교육의 중요

#### 3.3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 매개자의 유형과 역할
- 매개자 교육의 필요성
- 지역 문화 전문가로서의 매개자

## 4. 홍보

### 4.1 영역에 대한 이해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 정책적 배려와 지원 방안의 수립
- 특히 통합적 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문화/예술/교육/보건/복지 등)
-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활성화에 기여

### 4.2 현황

-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선보임으로 활성화에 기여
- 주관단체의 전문성과 수행능력도 향상
- 네트워킹의 구축
- 특히 강원지역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지역인 만큼 더욱 중요
- 강원도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교류의 모델이 필요

### 4.3 논의의 배경

- 정책입안, 주관단체, 평가나 연구 등에 아쉬운 점
- 대부분 프로그램 지향적이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홍보의 측면 취약
- 특히 주관단체의 성격은 대단히 다양함(공간/기획집단/매개/공공기관)
- 각 주관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차방안이나 홍보가 미흡
-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

### 4.4 문제제기

- 특히 홍보의 문제는 취약
- “잘하는 것만 알리는 것”이나 “미디어를 통한 언론의 노출”로만 인식
- 전략적이지 못하고 사업의 부수적인 영역으로만
- 심한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물론 홍보가 내용을 앞서거나 미디어적인 왜곡 과장 등은 배제
- 이것은 홍보의 기능과 당위성
- publicity보다는 넓은 의미의 PR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

### 4.5 논리의 시작

- 특히 공공정책이나 지원사업의 경우 더욱
- 지역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더욱 필요
- 사업을 둘러싸고 관계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주체들과 공유의 의무
- 지원의 재원 주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 : tax payer



#### 4.6 정의(definition)

- 학자와 단체에 따라 다양한 정의 중 데니 그리스볼드의 정의 :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관련한 대상에게 효과적인 수단과 매체를 통해 알려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총체

\* 중요한 키워드는 가치/신뢰/관계/커뮤니케이션

#### 4.7 홍보의 필요성

- 조직의 활동을 대중들에게 알려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립
-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 속에서 차별화하여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
- 대상들로부터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참여와 지원을 끌어내고 관계를 유지

#### 4.8. MR(Media Relations)

- 미디어 권력의 등장
- 미디어의 유형과 변천 : 언론/방송/인터넷/전통적 방식
- 미디어 가이드 : 대상의 주소록/유형화/업데이트
- 미디어 키트 : 역사/서비스개요/이미지/컨택포인트 등
- 기타 고려요소 : 타이밍/미디어소비자 연구/접촉방법과 경로
- 매체별 연구와 뉴스밸류의 창출

#### 4.9 위기관리(crisis & risk management)

- 위기의 정의와 종류 : 자연재해/범죄/네트워킹/내부 상황
- 위기별 매뉴얼 작성 :
- 위기팀 구성의 중요성 : 역할분담/전문가 조언
- 대응과 조치
- 사후관리와 평가

## 결론 및 제안

\*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요성

#### 0 리더쉽의 강화와 교육전략

- 문화 리더쉽의 정의와 중요성
-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리더
- 리더쉽 강화전략

- O (effective communication)
  - 논리의 개발 : 공공논리의 개발과 적용
  - 미디어의 활용 : 대상별 효과적 매체 선정과 활용
  - 눈높이 커뮤니케이션 : 고객 지향적 마인드/랭귀지의 문제
  
- O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building the communication)
  - 타깃의 선정 : S-T-P
  - 관계의 설정과 관리 : CRM
  - 정보와 인식의 공유 : 열린체계

## 사례 글

꿈, 희망 그리고 추억.... 노산분교에서 감자꽃스튜디오로

내 주소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333. 옛날에는 노산분교라 불렸던 산골의 한 폐교이다. 삼년 전 제 발로 찾아들어와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동안 꿈꿔오던 이른바 자연친화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전국의 교육청 인터넷을 살살이 뒤졌다. 서울에서 세 시간 이내, 임대료 연 오백만원 이내, 너무 번잡스럽지도 않고 너무 외떨어져서 불편하지도 않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서 지금의 보금자리를 찾는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거의 일년을 보냈다.

찾아낸 폐교는 문 닫은 지는 몇 년 안 되었지만 건물 자체가 무척 낡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낡아 있었다. 우선은 구석구석 깨끗이 먼지를 떨어내고 과학실로 쓰던 교실 한 간을 내가 기거할 방으로 정하고 최소한의 수리만 한 후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산골 생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야 했다. 지인들은 내가 회사도 경영하고 강단에도 서니 붙임성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업이 나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뿐, 실제로는 내성적이고 낮을 가려서 너살 좋게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전형적인 강원도 사람들이라 속정은 깊지만 무뚝뚝하고 그리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어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옆친 데 달친 격으로 이전에 폐교를 활용하여 무언가 해보려던 사람들이 모두 안 좋은 일로 떠나는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다. 시골이 인구가 자꾸 줄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 금방 환영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마을사람들에게는 새파랗게 젊은 놈이(우리 마을에서는 만 사십인 내가 최연소, 바로 윗줄이 오십의 이장님이다) 혼자서 커다란 학교를 임대해서 살려는 저의가 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연수원이나 실버타운을 만들려는 거냐, 리브호텔 지으려는 것은 아니냐, 혹시 영화 <선생 김봉두>의 서바이벌 사업자 같은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궁하며 당장 사업계획서를 내보 보라고 난리였다. 다짜고짜 물부터 끊어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나는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세수도 하고 해야 했다. 음반제작이나 도서출판, 공연기획 등 내가 하는 일을 시골 노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편의상 테이프도 만들고 책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둘러댔더니 다음날 온 동네에 내가 엉뚱하게도 인쇄공장을 한다고 소문이 돌아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런 나에게 돌과구를 마련해준 것은 옆 마을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다. 크리스천인 나는 자연스레 출석할 교회를 찾던 중 목사님께서 먼저 심방을 오셨고 뜻밖에 나이가 나보다 두 살 아래인 젊은 분이였다. 교회에 나가니 서른 명 남짓한 교인 중 거의가 할머니들이어서 조금씩 마을 사람이 되어가는 지혜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막걸리를 사들고 논 한가운데로 가서 이앙기도 돌리고, 고추 농사도 돕고,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 서울의 우리 극장에서 공연도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이 고향이고 폐교에서 같이 지내던 직원 한 명이 자신의 작품이 강원일보의 신춘문예 동화부분에 당선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나는 나의 공간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기뻐서 교실 한 칸을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쓰기로 했고 당선작 제목을 따서 <감자꽃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한 이년 동안 조용히 살고 있던 중 2003년 가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 지사님께서 출연하셨고,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나의 강원도 삶을 전해 들으시고는 한번 들르시겠다고 하셨다. 99년 관광엑스포 때 일을 하나 맡아 했던 인연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기에 설마 그 바쁘신 분이 이 산골 마을까지 진짜 찾아오실까 반신반의 했는데 어느 날 정말 나타나셨다. 당연히 군수님과 군청 직원들도 동행하셨고 우리 공간을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도 살려 지역을 위한 공공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다. 군청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매입하여 위탁 영영을 맡기는 형태로 바꾸고 도청과 함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축가 이종호 교수는 기꺼이 설계를 맡아 주었고 후배 디자이너들은 공간을 꾸미는 일을 시작했다. 나도 따로 문화관광부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활용하여 기자재도 갖추고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황량했던 폐교는 다목적 강당과 옥수수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등을 갖춘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감자꽃스튜디오>라 새로이 이름을 지어 간판을 걸고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점차 마을 사람들 외에도 읍내의 청소년들이나 교사,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과 외국인 부인에 지역 부대 장병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용하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는 지역의 농박이나 음식점들과 연계하여 재미있는 체험 방문 코스가 되게 하였다. 처음에는 조용히 말썽 없지만 지내도 다행일거라고 생각하던 마을 분들도 폐교 덕분에 마을도 활기를 띠는다고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기대하셨다. 폐교 덕분에 학교 인근으로 마을의 숙원이던 길도 넓어지고 상수도도 설치되었다.

지원은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지역과 관련한 각종 문화 정책 자문,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마케팅, 폐교의 문화공간 자원화, 문화원 활동참여 등등 지역에서의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서울에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사업의 기획이나 연구, 컨설팅 등이 많아졌다. 전공인 문화경영 이외 관광 관련한 강의도 많아졌다. 숨 가쁘게 달려온 나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조용히 강원도 산 속의 생활을 즐기러 들어왔다가 오히려 일복이 터졌다. 하지만 이런 바쁜 삶도 아름다운 평창의 자연 속에서 넉넉한 인심의 지역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마을을 나누며 할 수 있으니 즐거울 뿐이다. 이제 감자꽃스튜디오는 잡초가 무성하고 깨진 유리창이 흉물스러운 폐교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사치도 아니고, 또 돈을 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정서적, 사회적 중심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도농교류나 관광 활성화의 매개가 되는 종합적인 역할의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학교는 그 곳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꿈의 공간”이고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공간”이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이다. 이제 문을 닫은 학교도 다시 살아나 새로운 역할을 하며 영원히 마을의 중심을 진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사혜관련 기사 1. 교장선생님과 밴드부(강원일보)**

교장선생님은 매주 조회시간에 밴드부가 애국가를 연주할 때면 가슴이 조마조마 하시단다. 높은 음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속칭 ‘뺨사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신 것이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대목이 무사히 넘어가는 날엔 가슴을 쓸어내리신다. 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관악반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 형편상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 못해 학생들의 기량이 늘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농촌 학교도 크게 예외일 수 없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도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문화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셨다.

서울의 한 트럼펫 주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도를 자청했다. 황금같은 토요일, 길 위에서만 왕복 여덟 시간 가까이 보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결심이었다. 그도 외국의 명문 음악대학을 졸업하고도 척박한 문화계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음악을 떠나있던 차였다. 열성적인 지도에 모두들 자장면을 시켜먹으며 토요일 오후를 반납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학생들에게는 몰라보게 늘어가는 연주 실력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음악의 참 맛을 알아가고 나아가 예술이 인생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도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은 음악가에게도 결국 음악이 자신의 천직임을 새삼 깨닫고 다시 악기를 꺼내드는 계기가 되었다. ‘꽃피는 봄이오면’ 류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원도 평창고등학교에서 있는 일이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렇듯 다양한 양상으로 그 가치를

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예술이 훈련이나 고통이 아닌 즐거운 일이며,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창출하는 일종의 문화의 뉴딜 정책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지역 문화단체가 함께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 그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 사례관련 기사 2. 꿈하나 소리하나(강원일보)

매주 수요일 평창 읍내 한권을 지나가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아련히 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날은 하루 종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백명이 한꺼번에 악기를 두드리기 때문이다. 작년에 중학교 음악선생님의 의지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출한 국악반으로 시작한 일이 금년부터는 초, 중학교는 전교생이 국악을 배울 수 있게 확대되었다. 고등학교도 풍물반을 재편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도움학급 장애학생들도 여가활동으로 사물놀이를 배운다. 새로 부임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오자마자 이 사업부터 챙기시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을 위해 교장실도 내주셨다.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배우는데 열성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창 아침잠이 많을 혈기 왕성한 젊은 풍물 강사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비좁은 승합차를 타고 세 시간여를 달려오는 일을 일년 내내 반복해야 한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전도사들이나 다름없다. 기왕에 내려온 강사들을 활용하여 군청 공무원들도 팀을 조직해 배우기 시작했다. 인근 군부대에서는 대대장의 배려아래 장병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시작한다. 농한기를 이용해 부녀회와 마을 풍물단도 준비 중이니 국악의 불모지였던 이곳 동네는 이제 남도의 어느 예향 부럽지 않은 전통문화의 고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투입은 이렇듯 큰 파급 효과를 낳는 법이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와 군, 그리고 교육청 모두 합심한 덕이기도 하다.

이제 14일은 한바탕 축제, 일년간의 결실을 보는 날이다. 작년에 이어 <꿈하나 소리하나>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를 한다. 이 일의 출발을 지켜본 문화예술회관 스탭들도 그 어느 행사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출연자는 모두 학생들이지만 기획, 연출, 영상, 디자인 등 공연을 돕는 어른들의 손길도 많다. 인근 지역 대학생들도 진행을 맡기로 했다. 마침 영국에서 한국의 문화계를 취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언론인도 구경 온단다. 이들이 먼 길 마다않고 오는 것은 아마도 출연하는 학생들의 화려한 기량 때문이 아니라 일년 동안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려 는 사람들 모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 나누는 부활절 뮤지컬 - 조치원제일교회

이종권 목사(조치원제일교회 문화담당)

### 1. 론

#### A. 상황

##### i. 지역적 상황

조치원은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소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망은 조치원을 관통하여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도1호선과 철도의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고속철도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은 주변의 커다란 도시로 인하여 경제, 문화, 역사 면에서 그리 크게 두각 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마저 이들 큰 도시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동쪽으로는 청주시, 서쪽은 공주시, 남쪽은 대전시, 북쪽으로는 천안시가 위치하고 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청주가 20Km정도이며, 가장 먼 대전이 45Km정도의 거리에 있다.

##### ii. 문화적 상황

원래 조치원은 교통의 요지로 그래도 소규모의 공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상권을 만들고 활동하던 도시였지만 도시화와 함께 인근 대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젊은 층의 주민이 인근의 대도시로 유출되어 인구가 노령화되며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인구유출로 인해 이 지역은 서서히 과수 농사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바뀌어갔고, 문화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이다.

지역 내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교인 고려대와 홍익대의 캠퍼스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낙후해 구성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주변의 대도시인에 거주하며 통근 및 통학하는 실정이다. 문화 시설로는 ‘예술 문화회관’, ‘연기문화원’이 있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주민들과 친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는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조치원에는 아직 영화관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최초의 뮤지컬 공연은 2008년 조치원제일교회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초대’가 처음이었다.

#### B. 문화적 도전

이러한 문화적인 도전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 시행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비전센터라는 문화선교를 위한 사역 공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역의 내용적인 면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 i. 비전센터는 본 교회 문화사역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약 180㎡(55평) 카페와 키즈랜드 그리고 문화교실의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 ii. 카페- 카페 사역팀을 구성하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지역민들과 교우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iii. 키즈랜드- 약 130㎡(40평) 규모의 어린이 놀이 공간이다. 볼풀장, 정글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의 어린이 집 아이들이나 카페를 찾은 손님들의 자녀들 중에 미취학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iv. 문화강좌- 발레를 비롯하여 악기(드럼, 플룻, 색소폰 등), 예쁜 손 글씨(POP), 손뜨개 교실, 다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강좌가 주중에 열린다.

### C. 문선연과의 관계

지역의 문화적 선교라는 과제를 두고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많은 사역들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경로대학”과 “사랑의 식당”이 그것이다. 매주 화요일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년간 섬기고 있다. 동시에 주중 3회에 걸쳐 지역에 무료급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섬겨 오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 속에서 본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늘 지역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 더욱 지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와 사역의 방향성을 문화선교연구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사역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조치원은 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된 곳이다. 본 교회 또한 지역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화적인 선교 방법론이나 내용들이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문화선교의 동력자인 문화선교연구원의 도움은 크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문화선교연구원을 통하여 ‘뮤지컬’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 받은 한 교회로서 그에 대한 결과물들과 내용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다.

본 교회는 2008년과 2009년에 뮤지컬 “아름다운 초대”와 “가연아 사랑해”라는 작품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교회 예배당에서 공연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지역의 문화 공간인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아쉽게도 올해는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부활절 행사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대신 가을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 2. 론

A. 부활절 문화- 뮤지컬

B. 아름다운 초대

i. 일시: 2008년 5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ii. 장소: 조치원제일교회

iii.

본 교회의 준비 내용 중에 제일 우선시 되었던 것은 홍보였다. 교우들을 대상으로 주보에 게재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웠고,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여 교우들에게도 주었고 교우들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홍보전단을 지역 신문사를 통해서 배포했고, 현수막을 지역의 여러 요소에 설치했다.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문화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한 앞서서 교회는 섬기시는 몇몇 분들에게 문화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섬김도 요청을 했다.

iv. 효과

- 교인들에게 문화 사역의 내용과 필요성을 소개
- 교회가 지역문화를 선도- 조치원 최초의 뮤지컬 공연
- 교회의 이미지(위상) 올라감
- 교회 성도들의 문화선교 동참

v. 문제점

홍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특별히 지역에 있는 대학(고려대, 홍익대 캠퍼스)의 홍보가 미약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이 때에는 주관 부서가 청(소)년 사역 위원회에서 해서 더욱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었던 것 같다.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학생들이어서 지역의 문화행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C. 가연아 사랑해

i. 일시: 2009년 6월 26일(금) 저녁 7시

ii. 장소: 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

iii. 준비상황

2008년도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문화적인 선교를 소개하고 필요성을 설교한 시간이었다면 2009년도는 그 사역의 장을 넓혀서 지역의 교회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이 일을 동참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 교회 연합회가 이 행사를 주최했다. 동시에 군청에 이 행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 때에는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소로 택하여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그리고 공연일자가 조금 늦추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문화예술회관이 내부적으로 공사와 음향기기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계획보다 늦어져서 공연날짜도 조금 늦춰졌고 음향기기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iv. 효과:

○ 지역 사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 있었다. 군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군수, 군의회 의장, 지역의 여러 유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했다. 특별히 군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큰 의의성을 가졌다.

Cf) 불교계가 지방의 문화예산을 대부분 독식하고 있다. Temple stay, 산사 음악회, 문화제



및 보전 관련 예산

- 교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
- 지역교회연합의 부활절 행사
- 지역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문화선교에 동참)

3.       론

지역에 있는 교회 스스로가 부활절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로써 그리스도의 문화를 선포해 나가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었던 것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활절 뮤지컬이었다.

먼저는 교회 성들의 자발적 문화선교 사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문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다. 21세기라는 시대 상황과 조치원이라는 지역 속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적 열망을 뿜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문화적 콘텐츠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부활을 기쁨으로 연합하여 지역민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 행사에 대한 기대감 또한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부활절 연합행사로써 부활절연합새벽기도회가 있었지만, 평소보다 성도들의 새벽기도에 참여도가 낮았다. 그래서 다시 원점(개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림)으로 돌리는 일도 있었다.

끝으로 교회가 문화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도들 또한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다는 큰 기쁨을 누렸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요 또한 부활의 소식을 지역에 알리는 참된 의미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